

문제풀이 1회 보조자료 (화타전 해석)

화타는 자는 원화요 포국 초의 사람이니 일명 부라 서토에서 유학하여 겸하여 여러 가지 경에 통달하니라. 양성하는 술(양생술, 의학)을 깨달아서 나이가 백세에 가까우나 오히려 씩씩한 용모가 있으니 당시 사람이 신선이라 여김이라. 패나라 재상 진규가 (화타를) 효령으로 천거하고 태위(벼슬이름)인 황완이 불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아니함이라. 치법과 약을 쓰는 데에 정밀하여 화제를 처하는 데에 있어서 수종에 불과하고 마음으로 훈과주(적은분량)를 알아서 저울로 헤아리는 것을 빌리지 아니하며, 침을 놓고 뜸을 뜨는 데에 소수처에 지나지 아니해서 겨우 칠팔구라. 만약 질병이 발해서 안에서 맺혀져서 침과 약이 능히 미치지 못하는 바자는 이에 먼저 마비산을 술에 타서 복용하게 하고 이윽고 마취가 되어서 느끼는 바가 없어서 인하여 배와 등을 가르고 쪼개서 적취를 뽑아내고 갈라내되 만약 장위에 있으면 (적취를) 끊고 끊어서 깨끗이 씻어내고 질병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이윽고 봉합하고 신고(효과 좋은 봉합약)를 붙임이라. 사오일에 비로소 낮고 일월의 사이에 다 화평하고 회복함이라

화타가 일찍이 길을 갈 때에 목이 막히는 병이 있는 자를 보고 인하여 말을 하여 가로되 "아까 지나온 길 길모퉁이에 떡 파는 사람이 있으니 부평과 물김치가 매우 시기 때문에, 가히 삼되를 취해서 마시면 병이 스스로 마땅히 제거됨이라" 곧 화타의 말과 같으니(그렇게 하니) 곧장 뱀 한 마리를 토하거늘 이에 수레에 (기생충을)매달아서 화타를 기다리니 때에(이 때 당시 에) 화타의 소아들이 문중에서 노는 중이었다. (아이들이) 맞이해서 보면서 스스로 서로 말하기를(어린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말하길) 손님의 수레 옆에 물건(기생충)이 있으니 반드시 이 때문에 우리 옹(화타)를 만났던 것이라. 객이 나아감에 미쳐서 (손님이 그 수레에 가까이 가는데 이르러서 화타의 집에 있는) 벽 북쪽을 돌아봄에 뱀 십수 마리를 매달아 놓으니 그의 (화타의) 기이함을 앎이라.